

INTERIORS

닥지를 이용한 단색화

April, 2016 |

정창섭展

문의 국제갤러리 (02)3210-9885 www.kukjegallery.com

닥지를 이용한 단색화가 정창섭 개인전이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정창섭은 한지를 이용하여 한국적 감성과 정신을 표현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물성과 수행의 합일이라는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였다.

한지는 한국의 문화 속에서 오랜 세월의 연륜과 더불어 한국적 삶의 정서와 미(美) 의식이 내밀하게 배어 있는 재료로, 우리의 조상은 창호지의 문을 통해 대기의 광풍은 물론, 시간의 추이를 분명하게 체험하며 '안'과 '밖'의 두 세계를 공유한다. 한지의 원료인 닥을 이용해 단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창섭의 작품은 이른바 '그리지 않은 그림'으로도 불린다. 그는 1960년대에는 앵포르멜 회화 등 서양 미술사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한지를 이용한 작업을 해오다가 1980년대 초반부터 '닥' 연작을 발표했다. 닥을 이용한 단색화는 우선 닥을 물에 불려 반죽을 만들고, 이것을 캔버스에 올려 손으로 살살 두드리며 펼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면서 손가락 사이로 닥의 섬유질이 새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상태에서 건조하게 되면 닥 고유의 선·주름 등이 만들어진다. 이번 전시는 정창섭의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30여 점의 대표작품을 소개하며 그의 물아합일(物我合一)의 예술관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다. 전시는 3월 27일까지 계속된다.

01_ 닥 86921, 1986 Tak (Best fiber) on canvas 152x72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02_ 귀 77-M, Mixed Media on Canvas 1977 197x110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닥지를 이용한 단색화

